2023년 단기파견연수보고서

Ⅰ. 연수활동 개요

□ 연 수 자 : 정민우 선임행정원

□ 연수기간 : 2023.6.1. ~ 6.30. (30일)

□ 연수기관 : 뉴저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 등

□ 연수목적

○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연구원 행정지원시스템 발전에의 기여

○ 해외 인적교류를 통항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활동내역

○ (세인트 피터스 대학) 담당교수(박형아) 면담 및 위안부 기념비 방문

○ (보스턴 대학) 담당교수(최경식) 면담

○ (미주한인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송원석 사무총장 면담

○ (네바다 주립대) 담당교수(박성민) 면담

○ 그 외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방문, Harvard University 견학, United States Capitol 방문, Lincoln Memorial 방문,

Ⅱ. 뉴저지 세인트 피터스 대학 방문 등

□ 개관

○ 1872년에 설립된 Saint Peter′s University는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있는 4년제 사립 대학교이다. 27개의 예수회 기관 중 하나인 Saint Peter′s는 학부, 대학원 및 전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학습자 커뮤니티를 교육하여 교양 과목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과 기초를 다지는 데 전념하고 있다.

□ 세인트 피터스 대학 방문

○ 기존 계획은 세인트 피터스 대학에서 범죄학을 가르치시는 박형아 교수님을 만나 세인트 피터스 대학을 견학할 예정이었으나, 캐나다 산불로 인하여 대학이 폐쇄되어 견학은 불가능하여 대학교 주변을 견학한 후에 별도의 회의 장소를 마련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 박형아 교수님의 연구분야는 이민, 국토안보, 젠더, 가정폭력, 인신매매, 범죄예측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형 범죄학, 경찰, CPTED, 법의학 조사 등이다.

〈세인트 피터스 대학 근처 전경〉

○ 박형아 교수님의 연구분야는 이민, 국토안보, 젠더, 가정폭력, 인신매매, 범죄예측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형 범죄학, 경찰, CPTED, 법의학 조사 등이다.

○ 현재 미국에서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급격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미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의 군사훈련 도중에 인공지능이 작전을 지휘하는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것이 실전이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 뉴저지 버겐카운티 기림비 동판 방문 등

○ 박형아 교수님과 함께 뉴저지 버겐카운티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에 방문했다. 이 기림비는 일본정부에게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도록 미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여 미국 지방정부가 직접 재적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한인사회가 주도한 기존의 다른 기림비와 다른 의미가 있다. 이 기림비에는 'In memory of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and girls from Korea, China, Taiwan, the Philipphines, the Netherlands, and Indonesia who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Armed Forces of Imperial Japan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라고 적혀 있으며 2013년 3월 8일에 봉헌되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기림비〉

Ⅲ. 보스턴 대학교 방문 등

□ 개관

○ 1839년에 설립된 보스턴 대학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상위권 명문 연구중심 대학이다. 보스턴 대학교에는 약 3,900명의 교원과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보스턴 안에서 가장 큰 고용주이기도 하다. 보스턴 대학교에는 17개의 단과대학과 2개의 도심 캠퍼스가 있으며 학사 및 석사, 박사 학위와 의학, 치의학, 경영학, 법학 교육을 제공한다.

□ 보스턴 대학교 방문

○ 보스턴 대학교가 워낙 넓어 전부 견학하기는 어려워 도보로 부분적으로 견학을 했는데 보스턴 대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 간단한 견학 후에 보스턴 대학교 메트로폴리탄 칼리지에 재직하고 계시는 최경식 교수님을 찾아 뵈었다.

○ 최경식 교수님은 응용사회과학과 컴퓨터공학과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사이버범죄 수사 및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감독했다. 컴퓨터 포렌식 및 아동 착취 수사를 포함하여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 법 집행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한 실

적이 있다. 미국범죄학회(ASC) 사이버범죄분과 창립자이자 미주한인범죄학회(KOSCA) 부회장이다. 교수님은 UN과 협력하여 한국형사연구소 글로벌 사이버범죄 프로젝트인 VFAC(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를 진행했으며 강사 및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보스턴 대학교 외부 및 내부〉

○ 최경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미국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데 마약의 중독성이 심각하여 마약을 갑자기 끊으면 금단증세로 인한 부작용 및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에서 일정량의 마약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도 최근들어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사이버 크라임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야이다. 사이버 크라임은 단지 범죄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한다.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자기 혼자만 잘해서는 안되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 일을 해야 성과가 나오는 것처럼 범죄학분야도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다.

□ 하버드 대학교 방문

○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존 하버드에 의해 1636년에 세워져 38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이자 전 세계 수재들의 집결지로 손꼽힌다. 또한 전 세계 대학교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네임 밸류나 대학 브랜드 평판이 가장 높으며 재단의 기금이 가장 많은 대학이기도 하다.

○ 최경식 교수님과 하버드 대학교에 방문하여 견학을 했다. 존 하버드 동상의 발을 만지면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한다는 속설이 있어 하버드 대학교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모두 하버드 동상의 발을 만지고 가서 동상의 신발 끝이 하얗게 된 모습이 재미있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도서관인 와이드너 도서관도 방문했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하버드 대학교 내 존 하버드 동상 및 와이드너 도서관〉

Ⅳ. 필라델피아

□ 인디펜던스 홀, 자유의 종 방문

○ 인디펜던스 홀은 1776년 독립선언문에 서명하고, 1787년 연방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던 역사적인 곳이다. 자유의 종은 1776년 7월 8일 미국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 쳤던 종이다. 미국도 한때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했다는 점이 놀라웠으며, 지금과 같은 세계 1위의 강대국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새기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 및 자유의 종〉

Ⅳ. 워싱턴 D.C.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방문 등

□ 개관

○ 미주한인유권자연대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AGC)는 미주 최대 규모의 한인 유권자 네트워크로, 풀뿌리 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미주 한인 사회 전체의 정치력 신장과 나아가 한미 공조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비정파, 비영리 기관이다.

○ KAGC는 한인 현안을 미 연방의회 의원 및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교육하며 풀뿌리에서부터 연방 의사당까지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 30여 개의 지역사회 협력 단체의 시민참여 교육 및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구성원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인 시민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KAGC는 한인 유권자, 현안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최신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방문

○ 워싱턴 D.C. 에 위치한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사무실에 찾아가서 김동석 대표님과 송원석 사무총장님을 뵙고 면담을 진행했다. 최근에 사무실을 이전하여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했다. 과거 L.A.폭동 당시에 한인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해서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방 의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시민참여센터(KACE)가 설립되었고 지금의 KAGC까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D.C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

□ 미국 국회의사당 및 내셔널 몰 방문

○ KAGC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국회의사당이 있어 그곳을 방문했다. 그리고 링컨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한국전쟁 기념비 등이 있는 내셔널 몰에 방문했다. 미국도 한때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전쟁이 발생했으며 결국은 통일했듯이 한국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링컨 기념관과 한국전쟁 기념비를 감상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탑 및 링컨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Ⅴ. 라스베가스 네바다 주립대 방문

□ 개관

○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를 줄여 통칭 'UNLV'라고 부른다. 1957년에 설립되어 다른 명문대에 비해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호텔과 관광 산업이 발달한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덕에 특히 호텔 경영학과는 단숨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코넬대학과 쌍벽을 이루며 스위스의 호텔 명문대를 누르고 랭킹 1위로 올라섰다. 호텔 경영에 있어서는 미국 내 대학 순위 1위라는 말이다.

○ 학교의 크기가 358에이커(38,250평)이고 250개 이상의 학생 동아리들이 있다. 한인 학생회 또한 잘 발달되어 있어 대학 재학생은 물론 예비 대학생, 졸업생 등을 위해 이벤트나 세미나도 많이 준비한다고 한다. UNLV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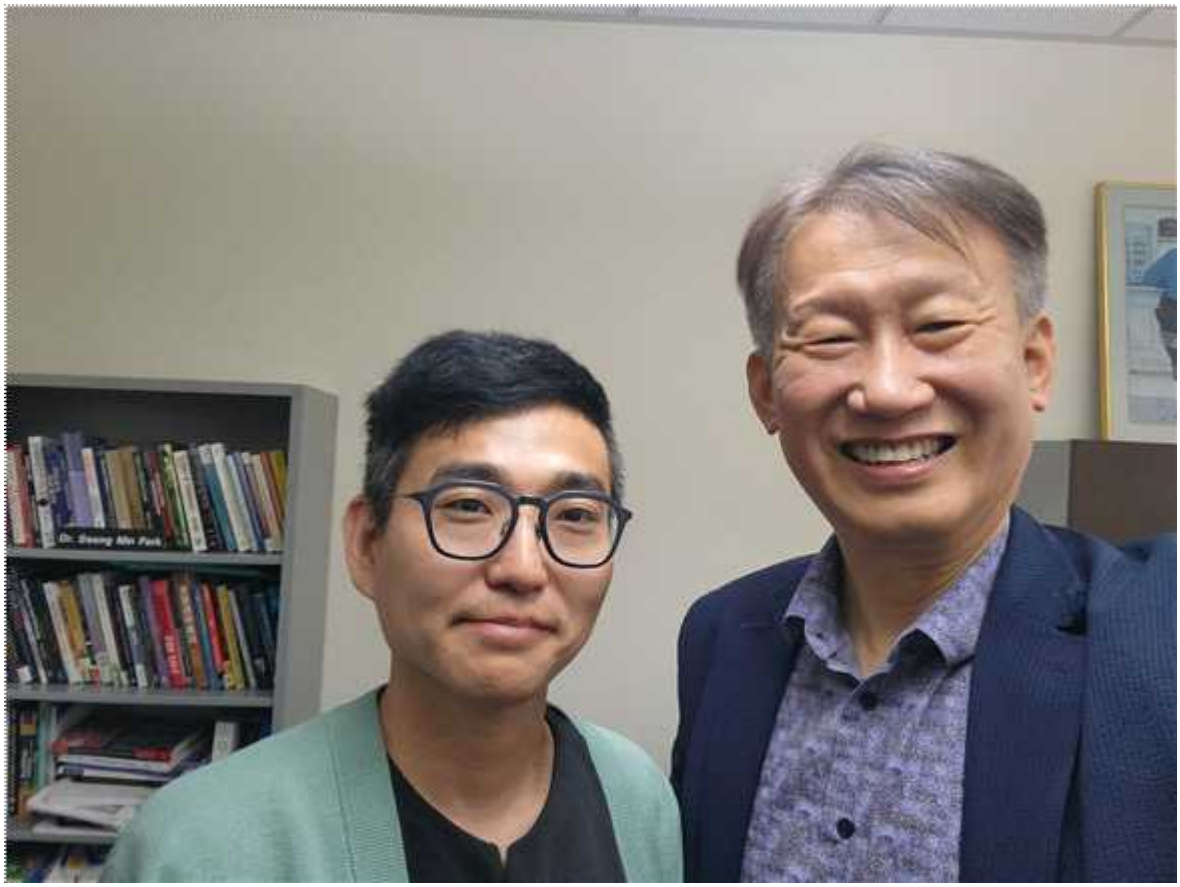
중 하나인 라스베가스에서 생활하며 미국의 대도시 문화를 습득하여 빨리빨리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UNLV의 비즈니스 대학 같은 경우 취업 프로그램이 매우 잘되어 있어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것 또한 네바다 주립대의 장점 중 하나이다.

〈네바다 주립대 앞에서〉

□ 라스베가스 주립대 방문

○ 네바다 주립대에 계시는 박성민 교수님을 찾아뵈었다. 박성민 교수님은 형사사법 분야를 전공하였으며, 통계 모델링 및 공간분석 적용에 중점을 둔 범죄 및 피해 패턴 분

석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의 미국의 마약 문제에 더 심각해진 이유가 강력한 마약 규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다. 강력하게 마약공급을 규제하면 마약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성화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최선의 방안은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마약 범죄 관리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성민 교수님과 함께〉

VI. 연수성과

○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미국의 문화나 생활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배웠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분야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웠으며, 이제는 한국도 무시할 수 없는 마약 범죄 등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미국과 한국의 행정시스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